

전통문화와 아시아 국가의 “섬” 관광

랴오 쉰(Liao Xun)*

내 용 소 개

본문의 내용은 주로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 관광업과의 상호관계에 한정하고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는데, 두가지 모두 해남성 관광 정책 및 그에 수반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결정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남성의 관광 정책은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점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제주나 오키나와, 발리의 관광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들 지역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상호 교류, 관광상품의 공동 판촉도 중요하지만 기생관광이나 카지노 등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관광 추세를 극복하려면 4개국이 자주 한 자리에 모여 심각한 연구 토론 및 공동의 협력 발전을 위한 계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먼저 이처럼 우리들에게 아시아 “섬”들의 공동 협력을 통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 관광업과 문화교류와의 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토론의 장까지 베풀어 주신 한국 제주도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한국의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중국의 해남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4개의 “섬”은 모두 자국의 최남단 혹은 남부에 위치해 있는 “섬” 관광지이다. 북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해 있는 한국·일본·중국 3개국 사람들은 겨울철 제주나 오키나와·해남도에서 휴학을 피할 수 있으며, 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발리에서 여름철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4개의 “섬”들은 겨울철의 기후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고, 풍광마저 수려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아시아 4개국은 문화나 역사전통 등 여러방면에 있어 서방 국가들과는 상이한 수많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업·관광정책 및 전통문화와 가치관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 혹은 고유의 관광문화를 새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는 “전통문화”는 주로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해남행정학원 교수

1. 현대 관광문화에 끼친 중국 전통문화의 적극적 영향

한국·일본·중국 3국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라 할 수 있는 유교·도교·불교 학설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약 2천년에 걸친 오랜 세월동안 전해내려오는 그 문화전통은 각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 특징을 줄자는 다음의 4가지 방면에 걸쳐 언급하고 싶다.

첫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다.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인간을 대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은 있으나, 그렇다고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기는 못했다. 인간은 자연법칙에 順應해야만 했으며, 인간이 자연법칙의 전부를 장악 혹은 운용하는 것은 단지 “순응”이라는 객관적 규칙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른바 “하늘은 道를 따르고, 道는 자연을 따른다”는 말이나 “天人合一” 등은 모두 도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동아시아 3국이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삶의 태도 및 행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3국의 문화예술·건축예술, 심지어 정원예술에까지 이는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전세계에서 거세게 주장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호 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이다. 우리는 사회의 총체적인 이익이 국부적인 이익보다 커야하고, 총체적인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경우 공자에서 손문, 그리고 오늘날 집권자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天下爲公”의 성세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천하위공”을 토대로 “大同理想”의 실현을 평생 자신이 추구해야할 인생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과 비교해 볼때 등소평의 경우는 생산력 발전만이 이러한 이상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때문에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및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산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경제 및 행정관리 체제는 개혁개방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인들은 이제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하면서 관광이 곧 생활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관광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은 단지 번잡한 생활 및 일상에서 벗어나 산천을 유람하고 즐기려 하는데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국, 나아가 지구촌 관광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얻고, 또한 자극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려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이라는 것은 단지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 서로 다른 국가, 다른 민족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천하위공”의 “대동이상” 실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중국 전통문화는 “仁”이란 글자 하나로 표현될 수 있다. “자신이 일어서려면 남부터 먼저 일어서게 하고, 자신이 도달하려면 남부터 먼저 도달하도록 하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중국 성인들의 말이 있다. 이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이해하려는 “和爲貴”의 신념은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발전하여 “상호주권 및 영토보존 존중”·“상호 내정불간섭”·“호혜평등”·“평화공존” 등 이른바 「세계평화공존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정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되어 주었다. 오늘날 국내 혹은 국외 여행을 하든간에 이러한 “仁”의 정신은 도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전통문화는 여러가지 신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 格物·致知·誠意·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등의 개인적 도덕 수양까지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서 밖으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완성하는 것. 이른바 “內聖外王”의 성인관이 그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만 관광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관광 자체를 자의든 타의든간에 “만권의 책을 읽어야 만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고전적 개인 수양의 수단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방향의 전통문화 특징은 20세기의 말을 살고있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 각국의 관광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한·일·중국 3국은 최소한 전통문화의 주류에 대해 충분하고도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2. 현대 관광문화에 끼친 중국 전통문화의 소극적 영향

모든 국가의 전통문화는 精華라 할 수 있는 뛰어난 문화와 지탄을 받는 저급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서양의 문화가 그렇고, 중국의 전통문화 역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전통문화가 현대 관광문화에 끼친 소극적 영향은 다음 3가지 방향에 걸쳐 거론할 수 있다.

먼저 기생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가정과 가족의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을 역사의 한부분 혹은 하나의 유대 관계, 하나의 교량으로 여기고 있다. 가족의 명예를 떨친 사람은 역대 조상의 줄에 서서 존경을 받게되고, 자손만대 우러러 보는 가족사의 위인으로 남게된다.

문제는 중국의 전통 도덕관인 “남존여비” 사상에 있다. 가정과 가족은 모두 남성위주로 되어있다. 性道德觀에 있어서도 남자는 방종하여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자는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2천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역사 습성이 되고 말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남녀평등” 주장은 한국·중국 및 일본 각국의 헌법에도 명시 되어있지만, 관광업의 발전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나타나는 기생관광 등 사회의 추악한 문제는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중·일 3국 가운데 기생관광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 현상을 두절시키고 있는 나라 또한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3국의 기생업은 공통적으로 장구한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기생관광 문제는 급작스런 관광업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도박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 전통문화의 天命觀 속에는 “天人合一” 및 “道法自然”의 적극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天命無常”, “聽天由命” 등의 소극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단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목전의 이익만 급급해하는 약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도박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는 장구한 역사 연원을 지니고 있다. 본세기 5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평등노선을 주장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먹는 이른바 “大鍋飯” 제도를 실행할 때, 도박과 기생은 두절된 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래, 특히 “일부 몇 사람만이라도 먼저 부강해야 한다”는 관념이 출현하면서부터 사람들간의 경제 수익은 점차 벌어지게 되었고, 이 때부터 치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정책을 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도박의 출현은 관광업의 발전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일부 관광업자들은 도박을 일종의 “국제관계”인 오락업종으로 끌어들이면서 급기야는 부패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다.

셋째 인정을 증시하고 법치관념을 경시하다보니 공덕심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고대 동방국가들은 모두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다. 사람들은 자기 터전인 고향을 중요시 여기면서 인간관계만을 중요시하다보니 법치전통은 결핍되었다. 중국문화는 개인수양을 중요시하면서 仁愛心으로 남을 대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틈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고관이 된 즉 천하를 거느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바에는 홀로 조용히 자기수양에나 힘써라”라고 하는 말은 곧 대관리가 되지 못한 바에는 차라리 “자기집 문앞의 눈이나 치우지 괜히 남의 집 기와 위의 서리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는 말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공덕심을 일거에 대거 깎아내려 버리고 있다.

기생이든 도박이든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어느 것 하나 합법적인 존재를 인정할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 역시 불행히도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두가지 사회공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회공해는 아시아 국가만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현상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남존여비”나 “천명관” 역시 중국 전통문화만이 지니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전통문화의 어느 방면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이는 우리 관광산업의 발전에 방관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마이너스 영향까지 가져다 주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은 공업화 발전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대중 생활양식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 말 가운데에는 대규모의 인구 유동까지 함축되어 있다. 법치관념과 공덕심은 낯선 사람들끼리의 교류를 맺어주는 기본준칙이므로 이를 소홀히한다면 자기 자신은 어느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전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다면 자기나라는 물론 지역정부의 이미지에까지 크나큰 손상을 입히고 말 것이다.

3. 중국 전통문화와 해남성의 관광정책

오늘날 일국의 모든 정책은 자기 국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전통문화와 단절하여 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나라의 문화전통에 일치되어 제정한 것이라면 그 정책의 추진은 비교적 쉽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추진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물론 정책 제정의 주요 목적은 자국 발전의 원대한 이익 추구에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이를 추진하려면 일시적이거나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 막 발전의 나래를 펼친 개발도상국으로 현대화의 임무는 무겁고 요원한 실정입니다. 오늘날 관광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정책은 “생산력 발전”이라는 것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증차대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 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가족계획”

등 생산력 발전에 절대 걸림돌이 되는 문화 전통을 과감히 퇴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용하고 있다.

해남성은 중국 내 960만 평방미터의 광활한 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어 환경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광자원 개발 및 여러가지 정책에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예를들면 省政府에서는 2년전 “萬泉河” 관광지의 제지공장 건설을 부결한 바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 곳에 공장을 건설했을 때 정부의 경제 이익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또한 三亞市에 화학 비료공장 건설까지 부결하였다.

성정부는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는 과정에서 세계 관광 선진지역의 경험을 터득하고, 특히 현대 국제관계의 학습을 통해 모든 것은 국제관계에 따라 처리하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국제간 인적교류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학습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대 우리 해남성에는 제정한 각종관광 관련정책을 분석해 보면 당사 결책자들은 국제관계에 따른 의사 결정에 매우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매번 정책을 수정할 때마다 국제관계에 보다 근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정부든 민간이든 간에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치관념과 공덕심 함양을 위해 노력·발전해 오고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관광은 그 자체가 곧 학습인 것이나 다름없다. 색다른 환경속에서 생소한 사람을 알게되고 나아가 공동의 행위준칙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자신을 거듭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나 민족의 장·단점까지 파악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문화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성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잡음도 일고 있다. 기생관광과 도박(카지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대중에 깔려있는 인식은 전혀 다르다. 일부 관원들은 기생관광과 도박 역시 막대한 관광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뜨고도 못본 척 그냥 넘겨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어떤 관원들은 이를 “국제관계”로 까지 인식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들 역시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분으로 중국이라는 토양에서 수천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 때문에 오늘날 이를 일시에 척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최근 해남성 정부 당국에서는 기생과 도박, 그리고 대중화되고 있는 전자오락 게임 등의 퇴치를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장기적인 효과는 앞으로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4. 아시아 “섬”관광의 공동발전을 위한 구상

중국 해남성은 제주나 오키나와, 그리고 발리와는 달리 관광객들을 주로 국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8년 광둥성에서 분리되어 자체 성으로 승격, 오늘날 중국 최대의 경제특구가 된 해남성은 대대적인 국내 및 국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관광객수에 비해 국제 관광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실정이다. 1996년의 해남성 전체에서 받아들

인 국내외 관광객수는 485.8만명, 그 가운데 국내 관광객수는 451.9만명, 국제 관광객은 33.9만명에 불과하여 총 관광객수의 7.5%에 불과하다.

지금도 내국인의 해남성 관광은 교통편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우선 철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료 역시 일반 중국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무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를 "95"정책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일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국내 관광객수는 갑절, 아니 몇 갑절 이상 증가할 것이며, 다음 세기가 되면 우리 해남성 관광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 여행객의 해남성 관광은 국내인보다 더 복잡하다. 우선 교통편의 불편을 들 수 있는데, 홍콩의 신공항이 언제 개통될런지가 관건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관광객들의 문화 관념상의 문제이다. 유럽이나 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관광객들은 각각 과연 어떠한 문화환경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자못 궁금할 뿐이다.

우리 4개국의 "섬"들은 공통적으로 겨울철은 그나마 자국의 겨울철 관광에는 적합지로 소문나 있지만, 여름의 경우는 각기 상황이 다르다. 여름철에 해남도나 발리를 여행하는 것은 제주도나 오키나와를 여행하는 것만큼 못하다. 그리고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겨울철 한국 및 일본 국내에서는 관광의 최적지이지만, 해남성이나 발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추운 편이다. 따라서 우리 상호간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 이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관광객을 교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면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4개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값진 여행이 될 것이다.

우리 동아시아 4개국은 서양문화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휘황찬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아직은 해외 관광객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 18년동안 진행되어 온 개혁·개방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은 지구상에서 최대의 관광객을 보유한 관광 강대국이 되어 세계 관광업의 발전에 거대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제주도나 오키나와, 발리, 해남도는 지구상에 수많은 관광객을 보유한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지명도가 아직은 높지 않다. 때문에 4개국이 각자 자기 지역을 소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구미 각국의 광대한 관광객들에게 우리 동아시아 역사의 유구함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세계일류의 관광 자원국임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4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다.

나는 중국내 몇몇 친구들이 건의한 하나의 "섬" 전체를 아예 전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여 기생관광과 카지노 등 오락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려는 계획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 동포들이 와서 즐기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 입장인데, 하물며 남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공자가 말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떠맡기지 말라"고 하는 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남에게 베풀어라"고 하는 예수기독교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의 나라에 쓰레기를 던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안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손해 보상 심리에서 표출된 것으로 "범죄자가 곤경"에 처한 심리적 상태나 다름없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미 크나 큰 교훈을 얻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류의 막대한 재산을 핵무기 소유 등 군비경쟁에 소비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교파간의

충돌이 갈수록 극렬하여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인성적인 단체 행위에 대해 우리 지식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 토론한다면 핵군비 경쟁까지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묘안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지식인들의 고뇌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4개국 “섬” 가운데에는 중국 해남도의 관광 사업이 가장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관광 경영이나 계획 등 모든 면에 걸쳐 경험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다. 특히 관광업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주나 오키나와 발리 등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거듭 이번 회의를 주최한 제주대학교 여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